

제주 에너지공사	보 도 자 료	담당	기획총무팀
			720-7421
	2012년 7월 10일(화요일)	문의	기획총무팀장 이상종
			720-7400 720-7421

제주에너지산업의 컨트롤타워 제주에너지공사 공식 출범

창사기념식, 10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
 신규인력 19명 조직구성, 제주상공회의소 3층에 사무실

□ 제주의 풍력자원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갈

제주에너지공사(사장 차우진)가 10일 창사기념식을 갖고

공식 출범한다

- 일시 : 2012년 7월 10일 오후 3시

- 장소 :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

□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동안 직원 채용(19명)과 법인 등기 절차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, 제주상공회의소 3층(옛 제주발전연구원)에 사무실을 갖추고 '제주 풍력자원의 가치화·공유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'을 비전으로 공식 출범

□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

- 풍력, 태양광 등 신·재생에너지 사업
-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하여 기술력을 축적하며, 풍력발전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
- 석유, 가스 등의 생산, 수송, 분배, 판매 등 에너지수급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
- 집단에너지 사업,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
- 에너지관련 교육·홍보 및 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·학·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.

□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초기 조직역량을 강화하면서 해상풍력사업추진에 주력하고 기존의 풍력발전단지를 전문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제주에너지공사의 핵심사업 내용

1) 풍다(風多) 활용, 정책목표인 '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' 실현

-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개발로 제주 전력 사용량의 100%를 신·재생에너지로 대체
 - 신재생에너지공급 7%(2011년 현재)->100%(2030년)
 - 첫 사업으로, 2016년까지
시범지구(한림·대정)해상풍력 350MW 설치
 - 해상풍력개발 기초조사, 지역균형 고려, 지역주민, 민간기업

등의 참여를 통해 별도의 재정투지 없이 안정적인 미래
동력산업으로 육성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임

- 고급어종 가두리 양식, 관광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해상풍력
개발로 융복합산업화 유도

- 현재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지구 6개소(146MW) 외의 지역
을 중심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체
계적인 개발 운영으로 도민 이익을 극대화 -

2) 기존 풍력단지 효율적 관리 및 시설관리 전문화로 안정적 인 수익 확대

- 행원 및 신창단지 평균 이용률(2011년 현재 12.3%)이 노후
된 시설로서 효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
민간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감
 - 올 연말까지 17%,
 - 2013년말까지 민간수준인 26%이상 이용률 향상 수익 확대

3) 풍력발전기 형식시험장 구축

- 제주는 국제표준 형식시험장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최적
조건지역임
 - 도내 최우수지역 6개소를 선정 형식시험장을 구축하여 제
주에너지기술센터의 수익 모델을 창출

- 국내 대형 풍력발전기 개발에 따른 시험장(Test-bed)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발전전력 판매 및 성능평가 수수료 등 연간 100억원이상 수익창출

4) '국제 신재생에너지 포럼' 창설

- 국·내외적으로 풍력발전 등 신·재생에너지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이 참가하는 국제포럼 개최
- 전문가 중심으로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, 기술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제주의 미래동력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

5) 재원조달(현물 출자)은

- 제주특별자치도가 수권자본금 1,000억원 전액 출자함
(제주에너지공사 설립및 운영조례 제5조)
- 현재는 현물출자대상중 5년이 경과한 행원, 신창 풍력발전기 12대 현물출자(80억원) 5년미만 시설인 김녕, 가시리 풍력발전시설을 지경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센터장의 승인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
- 현물출자 승인시까지의 도와 공사간에 위탁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임